

202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록

1. 일시: 2025. 1. 22.(수) 10:00~11:30

2. 장소: 대학본부 2층 소회의실1

3. 참석위원

- 위원장: 최성찬(부총장)
- 위원(학교대표): 홍석민(D-1처장)
- 위원(학생대표): 김동규(총학생회장), 우연정(총학생부회장), 이승주(총학생회 복지국장)
- 위원(직원대표): 이덕신(해부신경생물학교실)
- 위원(관련전문가): 황규선(강원연구원)
- 간사: 박용준(예산팀 팀장), 권기범(예산팀 직원)
- 불참: 조지현(교수대표), 김성희(한국투자증권)

4. 회의 안건 및 주요내용

가. 회의 안건

- 1)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 2) 2025학년도 예산편성(안)
- 3) 2024학년도 잉여금 처리방안

나. 주요내용

- 2025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지난 1, 2차 회의에서 논의한 각 대표의 요구안과 진행 경과를 설명함. 이후 3차 회의 진행 방식을 안내하고 회의 안건을 발의함.
- 예산팀장이 먼저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및 2025학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함. 1차 회의 때 학교 측에서 제시했던 등록금 인상률(학부 기준 5.485%)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진행하였으며, 동결안 대비 29.7억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고 설명함. 현재 예산항목별 구성비에 의하면 연구학생경비의 비중은 24.1%지만 교내장학금 추가 편성, 학과교육운영예산 인상, 학생경비 지원 확대 등 등록금 인상분의 30.3%를 연구학생경비에 우선 배정하였다고 알림.
- 위원장이 예산편성(안) 내용을 정리하며 지난 회의에서 학생대표가 제시했던 요구사항 중 학생 복지 예산 증액 부분은 현재 구성비 이상으로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언급함. 하지만 요구사항 중 2학기부터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등록금 인상률이 2%대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힘.
- 학생대표가 앞서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결과 등록금 인상 유예가 불가한 사유를 이해하였으며, 학생복지 예산 증액도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힘. 최종적으로 쟁점이 되는 등록금 인상률의 경우 학교 측에서 먼저 수용 가능한 범위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함.
- 학교대표가 2024학년도 의대생 휴학 건으로 등록금을 반환하게 되면서 대학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간략히 언급함. 대학 시설 환경개선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등록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운영이 곤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함. 일부 대학의 경우 적립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등록금 인상을 추진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대학의 경우 앞서 자료를 통해 확인했듯이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금을 인출해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함.

[간서명란]

	김동규	이 덕 신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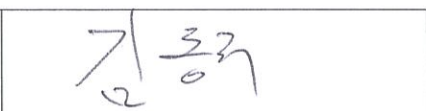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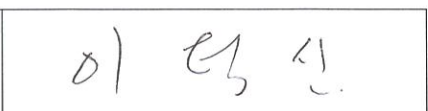
- 외부위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학생 입장에서도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나을 것이라고 언급함. 다만 인상률을 최초 학교 제시안처럼 법정한도 최대치까지 인상하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 부담될 수 있고, 인상률을 5%대 미만으로 적용하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5.3% 정도의 인상률을 합의점으로 제시함.
- 학생대표가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학생들의 반감에 대해 언급하며, 인상률을 5% 미만으로 조정하기를 희망했지만 현재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된다고 밝힘. 이번 예산편성(안)에 반영된 학생복지 예산 증액분은 유지하면서 인상률은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했을 때 인상률 조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함.
- 학교대표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등록금 인하 및 동결 기조가 유지되면서 누적된 수입 감소분과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교 측에서 최초에 제시했던 것처럼 법정한도에 근접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함. 인상률을 조정하게 될 경우 학생복지 예산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학교 예산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함. 현재 예산편성(안)을 유지하는 선에서 5.4%를 조정안으로 제시함.
- 직원대표가 학교에서 지출되는 모든 예산항목은 학교 발전을 통한 교육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학생복지 예산에 국한하여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언급함. 결과적으로 등록금 인상분 전체가 학교 발전에 쓰이기 때문에 대승적인 관점에서 학교 측에서 제시한 등록금 인상률을 수용하는 것을 제안함.
- 외부위원이 오랜 기간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등록금 인하 및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있을 때, 이런 정책이 지속되면 교육서비스의 질이 점차 하락하여 결국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지는 시점이 온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경험을 언급함. 지금 등록금 인상률을 약간 조정해서 얻을 수 있는 미미한 이익에 얽매이기보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서비스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함.
- 학생대표가 등록금 인상률을 조금 더 낮추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위원들의 설명을 듣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학교 측에서 제시한 대로 학생복지 예산 확대가 보장된다면 인상률 5.4%에 동의하겠다고 밝힘.
- 위원장이 각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5.4%로 최종 합의하였음을 알리고, 학생대표의 요구대로 학생복지 예산 증액분을 모두 반영하여 예산편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힘. 이에 모든 위원이 동의하며 본 회의를 종료함.

다. 심의·의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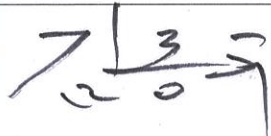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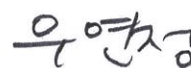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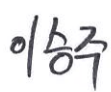
- 1)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학부 및 대학원 평균등록금 기준 5.4% 인상, 계절학기 수업료 6.67% 인상으로 의결함.
- 2) 2025학년도 예산편성(안): 원안대로 의결함.
- 3) 2024학년도 잉여금 처리방안: 원안대로 의결함.

붙임 2025학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간서명란]

		
---	---	--

202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서명부(3차)

구분	직위	소속	성명	서명
학교대표	위원장	부총장	최성찬	
	위원	D-1처장	홍석민	
학생대표	"	2025 총학생회 회장	김동규	
	"	2025 총학생회 부회장	우연정	
	"	2025 총학생회 복지국장	이승주	
교수대표	"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지현	
직원대표	"	의과대학 해부신경생물학교실	이덕신	
전문위원	"	한국투자증권 춘천지점	김성희	
	"	강원연구원 규제·공공팀	황규선	